

시시노레이간에서 감상하는 저녁 풍경과 야경

‘시시노레이간’에서의 조망은 언제 봐도 방문객을 매료시키는데, 서향이기 때문에 해가 질 때의 풍경이 특히 인상적입니다. 일본의 ‘석양 100 선’에도 선정되어 있습니다.

매년 5 월부터 9 월에 걸쳐 세토 내해로 저무는 석양이 바다와 하늘을 오렌지색과 노란색으로 물들입니다. 산등성이에서 내려다보면 석양에 비친 메기지마 섬과 오기지마 섬의 실루엣이 떠오르며, 그 너머로는 예술의 섬으로 유명한 나오시마 섬이 보입니다.

해가 저물면 다카마쓰의 불빛과 드넓은 검은 바다의 대비가 아름답습니다. 다카마쓰와 세토 내해의 섬들을 오가는 페리는 마치 작은 등룡처럼 풍경 속을 가로지릅니다.